

# 뉴스위크 선정 'America's 25 New Elite 'Ivies'



▲ Bowdoin College의 'walker art building' 전경. 사진= Bowdoin College 홈페이지 캡처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말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컬럼비아, 유젠, 다트머스, 브라운, 그리고 코넬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아이비리그 대학은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당연히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2019년에는 31만 1948명이 지원을 해서 2만 1168명만이 합격을 했다. 합격률은 6.79%다. 2020년에는 24만 8781명이 지원을 했고 1만 6390명이 합격을 해 합격률은 6.59%였다. 100명이 지원을 하면 6명 정도가 합격을 할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대학들이다.

이러다 보니 불합격생의 선택은 아이비리그 다음 그룹의 대학이다. 그래서 이들 대학들도 덩달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학교 수준이 올라가게 됐다.

이런 현상에 착안해 유명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2006년 8월 20일에 'America's 25 New Elite 'Ivies' 라는 제목을 기사를 통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대학들을 소개했다.

뉴스위크는 "새로운 엘리트 대학의 출현은 수요에 부응하는 전형적인 공급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엘리트 학교들은 분명하게 정의된 그룹이었다. 스탠포드, 시카고, MIT, 칼텍과 같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대학들과 함께 아이비리그의 8개 학교가 그 그룹이다. 그리고 윌리엄스, 암허스트, 미들베리, 스와스모어, 웨슬리언과 같은 소규모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더 친밀한 캠퍼스를 선호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택의 대상이다. 그러

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진학률이 급증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도 많아졌다. 우수한 교육에 대한 수요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크고 작은 명문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뉴 아이비즈' 라는 이름의 다음 목록에 있는 대학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붐의 수혜자들이다." 라며 '뉴 아이비즈' 를 소개했다.

뉴스위크는 '뉴 아이비즈' 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이 중복 추천하는 대학들을 고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대학은 25개다. 이들 대학을 연구중심 종합대학과 학부 중심 리버럴 아츠로 분류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 연구중심 종합대학(16개)

- ▶ Boston College ▶ Carnegie Mellon ▶ Emory University ▶ University of Michigan ▶ NYU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University of Notre Dame ▶ Olin College of Engineering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 Rice University ▶ University of Rochester ▶ Tufts Univers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Vanderbilt University ▶ University of Virginia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 학부중심 리버럴 아츠 칼리지(9개)

- ▶ Bowdoin College ▶ the five Claremont Colleges ( Pomona College, Scripps College, Claremont McKenna College, Harvey Mudd College, Pitzer College) ▶ Colby College ▶ Colgate University ▶ Davidson College ▶ Kenyon College ▶ Macalester College ▶ Reed College ▶ Skidmore College

# 명문 대학들, 난이도 높은 과목 이수 학생 선호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은 종합적 평가(Holistic Admissions)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종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 성적(GPA)과 '도전적인 학습'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대학들이 예외 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보는 요소가 '도전적 학습' 이다.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몇 학년 때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각 고등학교마다 개설된 과목과 그 수준이 다르다. 어떤 학교는 AP 과목이 15개 개설돼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달랑 3개만 있기도 하다. AP 과목이 많이 개설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목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게 개설돼 있는 학교들은 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럴 경우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고 좋은 성적을 낸 학생과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학생들 간에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개설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얼마나 수강했는가를 평가한다. 즉 A 학생은 3과목의 AP가 개설된 학교에서 3과목 모두를 수강하고 5점을 받은 학생과 10개 과목이 개설됐음에도 3과목만을 수강하고 모두 5점을 받은 B 학생과 비교할 때 A 학생이 훨씬 도전적인 학습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입학 사정관들은 바로 이런 점을 높게 평가하려고 한다.

주립대학들은 상위권 사립대학들이 전인적 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립대학은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 만 명이기에 상위

권 대학들처럼 총체적 평가, 전인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 제한된 수의 입학 사정관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계량화하기 쉬운 GPA와 SAT·ACT 성적을 갖고 평가한다.

주립대학들 가운데서도 상위권 주립대학들은 에세이를 요구하기도 한다. UC 버클리는 도전적인 학습을 했는가와 GPA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또한 에세이와 지원 학생이 캘리포니아주 학생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립대학이 학업적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이 요소를 갖고 선발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지원 학생들 간의 학력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를 제공하고 끌여오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GPA나 SAT·ACT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주립대학은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 어너 코스를 두고 학업성적이 매우 뛰어난 시민권자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관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어떤 사정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올해 입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SAT, ACT 점수를 필수 제출에서 선택적 제출로 전환했다. 이는 UC계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UC계는 지난 5월 21일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의 이사회에서 향후 5년간 대학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의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4년 내 독자적으로 입학시험을 개발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